

끝까지, 말씀으로 걸어갑시다

40 일 「말씀, 기도가 되다」의 여정이 이제 두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 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어느새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우리 안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특별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도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당장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다듬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두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보다 **하루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좋은 느낌을 찾기보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으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말씀드리십시오.**

40 일의 목표는 40 일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직 두 주가 남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다시 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8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이진교(2)	최상천(9)	조은영(16)	박래석(23) 한정임(30)

주일 예배 2026년 8월 16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다 감사드리세 / 찬송가 66(신) 20(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62 번(시편 143 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 찬송가 342(신) 395(구)

기도 / 조은영 집사

성경 봉독 / 호세아 14 장 1-9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내게로 돌아오라 2 / 박화신 목사

찬송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찬송가 370(신) 45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3,4 절 / 찬송가 588(신) 30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 회개는 단순히 죄를 끊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삶의 가장 큰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삶의 안전과 미래는 앗수르와 우상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선택과 미래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맡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현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참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17 일
Day 31 (월)

하나님의 타이밍을 외치는 부르짖음

오늘의 말씀 (시편 119:121-125)

<개역개정>

121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3 나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4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25 나는 주의 종이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새번역>

121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122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23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124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
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25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묵상

힘들을 주님께 외칠 때에, 과연 나는 먼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피곤할만큼 구원을 소망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에 공의를 행하고
있다고 외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시인이 도전이 됩니다

기도의 초점

상황의 변화가 더디고 기다림에 지쳐 눈이 피곤할 때, 낙심을 멈추고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빠르게 살려다가 마주한 억울한 형편 속에서 내 눈과 영혼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천지 만물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의 보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짓밟지 못하도록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가리시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2026 년 표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14:1-9

1.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며,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2. 겹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께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 호세아 14 장의 “내게로 돌아오라” 는 바로 이러한 신뢰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결정권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기도는 우리의 순종이 되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4.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떠난 백성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5.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이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19일
Day 33 (수)

발걸음을 고정하는 든든한 주춧돌

오늘의 말씀 (시편 119:131-135)

<개역개정>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었나이다**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133**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134**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속량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135**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새번역>

131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132**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133**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134**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135**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묵상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어떤 존재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깃들여 있기 때문이겠지요. 싫어하면 이름조차도 듣기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내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초점

세상의 트렌드나 유행, 내 요동치는 감정에 삶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모든 선택과 발걸음을 단단히 고정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 내 약한 의지와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의 흔들리는 발걸음을 오직 주의 말씀 위에 단단히 고정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의 세력이 감히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 비추시는 주의 인자한 얼굴빛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의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20일
Day 34 (목)

무너진 세상을 향한 거룩한 눈물

오늘의 말씀 (시편 119:136-140)

<개역개정>

136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137**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138**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신실하니이다**139**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140**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새번역>

136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137**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138**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139**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140**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하므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묵상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한 최고의 묵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생활조차도 자기 중심적일 수 밖에 없는 부족함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초점

세상의 악함을 보며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와 가정을 위해 거룩한 눈물로 중보하며 정결한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말씀이 버려지고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거룩한 영적 애통함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온갖 세상 가치관 속에서도 불로 정련한 듯 심히 순수한 주의 말씀을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 삼고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21일
Day 35 (금)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즐거움

오늘의 말씀 (시편 119:141-144)

<개역개정>

141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143**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144**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새번역>

141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142**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143**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144**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묵상

제일 잔인하다 싶을 때가, 짜증날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바로 자존감이 무너질 때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묵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장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순간이 힘들지요. 하지만 말씀은 완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여전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의 입술로 외치고 기도하면,
정말로 깨달아지고 힘이 나며, 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초점

내 처지가 미천해 보이고 뜻하지 않은 환난과 우환이 사방에서 압박해 올 때, 현실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인 말씀 안에서 솟아나는 초자연적 기쁨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을 짓눌렀던 모든 우환과 환난의 무게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냅니다! 내가 비록 세상 눈에 미천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진리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이 내 심령에 요동치게 하사, 주말
동안 나를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18일
Day 32 (화)

말씀의 문을 열 때 터지는 영적 통찰

오늘의 말씀 (시편 119:126-130)

<개역개정>

126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127**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128**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129**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새번역>

126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127**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128**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합니다.**129**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130**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묵상

아무리 방 안에 눈부신 햇살이 가득해도,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때,
비로소 답답했던 내 영혼에 따스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지를 내 마음이
받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도의 초점

내 알팍한 경험과 세상 지식에 갇혀 조바심내지 않고, 매일 말씀의 문을 열어 내 삶의
어두운 영역마다 하늘의 명철한 빛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사방이 꼭 막힌 듯한 문제 앞에서 내 우둔함으로 끔찍 앓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열어 내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순금보다
귀한 주의 법도가 내 눈을 밝히사, 꼬여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분별하는 명철함과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